



「수출현장지원단」,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중심으로 총력 지원

- 탄소·나노소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위한 제16차 간담회 -
- 산업별 주요 전시회와 연계하여 맞춤형 수출지원서비스 상담 -

수출현장지원단이 범부처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업의 수출 애로해소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7일(금)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나노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16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원정책 설명 및 맞춤형 상담을 위한 별도 설명부스를 운영하였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15차까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산단 및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애로해소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16차 간담회부터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전시회들과 연계하여 ①간담회를 통한 수출애로 청취 및 현장해결과, ②상담 부스를 통한 지원사업 설명 및 맞춤형 상담을 윈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소·나노소재 수출 관련하여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신규 해외판로 개척의 어려움, 대금 수급 지연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 수요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 요구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상품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제공 등 다양한 애로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지속적 기조로 이어나가고, 수출증가율도 조기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반도체, 투명디스플레이,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동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030
	무역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한솔	044-203-4033

참고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 행사개요

□ **일시** : '23. 7. 7(금) 14:00~15:00

□ **장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10호 * 나노코리아박람회(7.5-7.7)와 연계 개최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무역진흥과장, 섬유탄소나노과
- (수출 지원기관) 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코트라 정외영 혁신성장본부장,
무역보험공사 장진욱 중소기업사업본부장
- (기업) 새날테크텍스, 데크카본, 하이즈항공, 케이지에프, 석경에이티,
아모그린텍 등 6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업

□ 개최목적

- ① 주요 산단(시즌1) 및 업종(시즌2)에 이어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집중 지원을 위한 수출현장지원단 시즌3 개시
- ② 관련 국내 전시회와 연계하여 ①수출애로 청취 및 현장해결,
②지원사업 홍보 및 맞춤형 상담(설명부스) 등 원스톱 지원

□ 세부 일정

시간(60')			세부 일정	비고
14:00	14:05	5'	· 통상교섭본부장 모두 발언	
14:05	14:10	5'	· 탄소나노섬유산업 동향	섬유탄소나노과
14:15	14:45	30'	· 수출기업별 애로 및 건의 청취	기업별 순차 진행
14:45	14:58	13'	· 정부 및 유관기관 답변	
14:58	15:00	2'	· 마무리 발언	

※ 간담회와 별도로, 전시장 내 수출지원정책 상담 설명부스 운영(10:00-17:00)